

# 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적소유권의 기초 이론

## Fundamental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protect design

### 최영옥

동해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 문상준

동해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 이현미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시각브랜드패키지전공

### Choi, Young Ok

Dept. of visual Design, DHU

### Moon Sang Jun

Dept. of visual Design, DHU

### Lee, Hyun mi

Dept. of brand & package Design, DHU

• Key words: legal Protection, Fundamental theory, Design

## 1. 서론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며, 현대 디지털시대에서 디자이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과 구별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더구나 자신의 지적소유권을 지켜야 할 디자이너들의 보호의식은 매우 희박하다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정보조차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는 변화되는 사회적 상황과 기술적 발달 등을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이 함께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도 인지하지 못하며 그 인식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보호관련 법규에 관하여 그 목적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디자인 관련 법규에 대하여 디자이너들의 인식과 필요성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디자인 보호법규

### 2-1 저작권법(著作權法)

저작권법이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표현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08년의 한국저작권령이라 할 수 있으나 일제의 강정으로 실효를 보지 못하였고, 현행 저작권법의 연원은 1957년 신규 제정된 저작권법이다. 1994년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에서 저작물 이용시 보상금 지급 규정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규정, 판매용 음반에 대한 대여권 인정규정이 신설되었고,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되었다. 2000년의 부분개정에서는 전송권이 신설되었고,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저작권 등록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였다.

저작권법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조정법이자, 지속적으로 새로운 저작물 및 이용방법이 출현함에 따라 그 해석적용에 탄력성이 요구되는 사실변화에 밀접한 법이다. 2000년 응용미술작품의 용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변경하면서 그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는데, 이에는 디자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저작권법의 디자인 보호법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며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예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법으로서의 저작권법의 본질상 저작권법은 예나 지금이나 디자인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유권은 물건(동산과 부동산)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전부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조건 없이 발생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보면, 그 대상에 있어, 소유권은 유체물인 물건을 객체로 하는 것에 반해 저작권은 무형의 저작물, 즉 무체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소유권은 재산권이지만 저작권은 재산권적 성격과 인격권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보호기간에 있어 소유권은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한 영구적, 항구적이지만, 저작권은 유한한 보호기간, 예컨대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저작물은 공유(公有)로 돌아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 대상을 달리하므로 종종 분리되는데, 예컨대 화가가 작품을 양도한 경우에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넘어가지만 저작권은 화가에게 유보되며, 책을 한 권 구입하는 경우에도 책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은 독자에게 있지만 무형의 책 내용(contents)에 대한 저작권은 책의 저자에게 있는 것이다.

### 2-2 의장법(意匠法)

의장법이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 의장법은 특허권적 접근법에 의한 제품디자인 보호법의 전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심사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물품을 기준으로 무심사 주의를 병행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장법 제2조 1항에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법은 애초에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이며, 이에 물품상, 형태상,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의장법은 공업적 제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기본법으로서 정착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의장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상속인이나 승계인의 부존재, 권리의 포기, 의장권 무효 심결의 확정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사의장이란 등록된 의장과 비슷한 의장. 의장법에 의하면 유사의장은 신규성(新規性)이 없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의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신규성이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장은 원의장(原意匠)과 일체성을 가지게 되며, 유사의장권은 가장 먼저 발생한 의장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2-3 상표법(商標法) 및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상표법이란 상품이나 영업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법이다. 디자인 창작물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상품식별 표지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의 절차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즉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상표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에 비해 보호대상이 특이하고 그 목적도 상이하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법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특허법적 체제를 공유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디자인과 관계 깊은 것은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및 희석화 행위이다.

반면 소유권은 물건(동산과 부동산)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전부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조건 없이 발생한다.

### 2-4 특허법(特許法) 및 실용신안법(實用新案法)

특허법이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즉 발명일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것, 신규성일것, 진보성일 것이며, 디자인에는 미적, 장식적 요소와 관계없이 순전히 기술적 요소만을 가지는 디자인도 있으며 현대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실정이다. 현행 우리의 특허법, 실용신안법도 발명과 고안이 모두 기본적으로 기술적 상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서 보호대상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으로 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적 난이의 차이를 심각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

	실용신안 Utility Mode	특허 patent
보호대상	고안에 대해서부여	고도한 발명에 대해서 부여
심사여부	실질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	특허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여
권리획득	약6-8개월	2년-3년
권리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출원일후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간
권리의 행사	권리행사 전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그유효성판단.	침해에 대하여 즉각적 권리행사가능

실용신안의 선등록 무심사제도와 특허와 실용간 이중출원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와 실용은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적 요소가 특

허성을 구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보았을 때, 심사 대상 때에 미묘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이 주로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3. 저작권법의 목적과 분류

### 3-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3-2 저작권법의 분류

①표현형식에 의한 분류: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화,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9종 ②저작명에 의한 분류: 실명, 이명, 무명 저작물 ③성립순위에 의한 분류: 원저자가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④저작자의 수 및 결합방법에 의한 분류: 단독저작물과 합동저작물로 분류, 합동저작물 ⑤공표 유무에 따른 분류: 공표저작물과 미공표 저작물로 분류, 구별의 실익은 공표권 여부 ⑥계속성 여부에 따른 분류:1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분류

### 3-3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의 예

①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각본과 같이 문자로 표현되는 것과 강연, 연설 등 ②음악저작물 청각에 의해 파악 될 수 있는 음에 의해 사상, 즉흥연주나 가창도 음악저작물 ③연극저작물: 언어, 동작, 환경상황을 규정 ④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등의 평면적인 외형 및 공예, 조각등 ⑤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포함 ⑥사진저작물;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 색채의 배합, 광량의 조절 등 ⑦영상저작물: 극장용 영화, 뉴스영화, 기록영화, 자기테이프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영상물을 수록한 비디오 테이프 ⑧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도형저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 ⑨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

## 4. 결론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수준은 현재 매우 미약하다. 특허 우리 법원의 입장은 디자인개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직도 창조성에 대한 보호보다는 행정적인 편리주의와 모호한 구별법으로 지적소유권 보호에 허점이 많은 것이 현 상황이다. 디자인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보호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디자인에 저작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보호내용의 충실화, 침해모니터링을 위한 전산 시스템 확충, 침해사례에 대한 공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이너와 관련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과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고취시켜 나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디자인 관련자들이 디자인 연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기를 바라며 전문가적 연구에 하나의 단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